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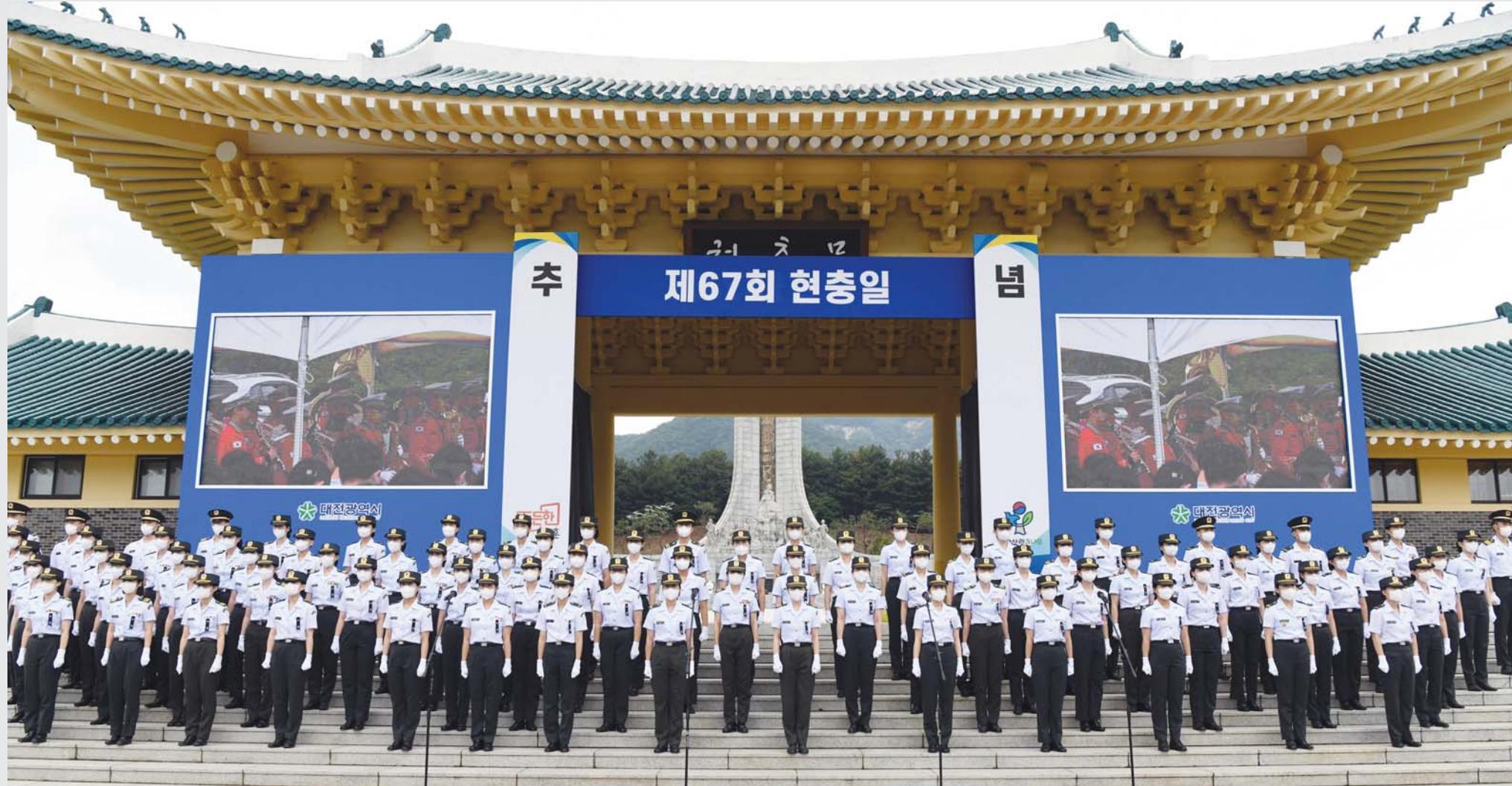
창간 1990년 5월 5일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ress

2022년 6월 30일 제132호

학교 홈페이지 : www.kafna.ac.kr | www.instagram.com/mnd_kafna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진행됐다.▲

제67회 현충일, 순국선열·호국영령 뜻 기려 선배간호장교 묘역 찾아 희생정신 되새겨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립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지난 6월 6

일 제67회 현충일 추념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현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현시 및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일반 시민 등 약 3000명이 참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시민들께서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생도들은 애국가와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며 애국심을 다지고 호국보훈의 정신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 생도들은 이끈 유강이 생도(63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며 “그분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생도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과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생도들은 고(故) 선효선소령을 비롯한 27명의 간호장교의 묘역을 찾아 묵념을 올리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

졌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생도들은 현충탑에 묵념을 올린 후 태극기 꽂기와 묘역 주변을 정리하는 등 정화활동을 하며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

박정하 생도(65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기꺼이 나설 수 있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3년 김희준 기자
si23456@naver.com

주요기사 1·2면 호국보훈의 달 3면/종합 한나예 의식 4·5면/기획 군사훈련 6면/학술 메타버스 7면/생활 생도들의 학보 8면/문화 스물셋-스물 하나

‘비상’ 飛上 백합문예 공모

2022. 05. 02. - 08. 31



공모 주제 비상

공모 부문

- 시(A4용지 자유형식)
 - 수필(A4용지 2~3장,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소설(A4용지 7~15장,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 * 작품 제출시 걸레페이지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응모작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응모 기간

2022년 5월 2일(월) ~ 8월 31일(수)

응모 대상

각 군 사관생도, 국군장병 / 군무원, 동문, 학부모, 기타 희망자

응모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마감 당일 도착한 응모작까지 유효

응모접수처

◎전자우편 (인트라넷) : juankosy@army.mil
(인터넷) : kafna4502@mnd.go.kr
◎우편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외협력과 우)34059

시상 내용

구 분	대 상	우수상	장려상	계
인 원	1명	3명 (부문별 각 1명)	3명 (부문별 각 1명)	7명
부 상 (상패 및 상품)	20만원	15만원	10만원	95만원

* 수상자 전원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상장 수여(동일인 중복수상 제한)

* 수상작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제51회 교지 게재

* 공모 참가자 전원에게 학교기념품 증정

결과 발표

2022년 9월 16일(금) 예정
국군간호사관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문의처

군) 975-4566, 일반) 042-878-4566
(인터넷) : www.kafna.ac.kr | 인트라넷 : www.mnd.mil/user/afna

2022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본교 대연병장에서 학교장 강점숙 준장을 비롯한 간부 및 동문과 생도, 생도가족이 제3차 한나예 의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도 가족과 동문이 함께한 한나예의식 거행

2022년 제3차 한나예 의식, 임관 10·2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부대개방 행사로 진행

생도들의 명예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닦혔던 교정의 문을 열고 힘차게 펴쳐나갔다. 지난 5월 2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강점숙 준장 주관으로 교내 간부 및 10·20주년을 맞은 동문과 생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대연병장에서 제3차 한나예 의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부대를 개방해 생도들의 가족이 함께 하여 행사는 주인공인 생도들을 더욱 빛냈다. 제3차 한나예 의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 한나예 의식과 2부 공연 관람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식순은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명예신조 제창, 명예제언, 명예 강조사항 전파, 기부금 전달, 분열 그리고 폐식사로 구성됐다. 2학년 명예위원장 이도윤 생도(65기)는 명예제언에서 “불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듯이, 과정이 어려울수록 보석같이 빛나는 결과를 마주하리라 확신하며 사생도의 길을 가고자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자”는 명예관을 공유했다. 명예위원장 김채희 생도(63기)는 “타인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자 할 때 진정한 나의 가치는 높아진다”며 “국군간호사관생도이자 미래 간호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현신하고 봉사

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40기 동문 대표 김성혜 중령은 “본인, 동기, 그리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질 것”을 독려하며 명예제언을 마쳤다. 명예부위원장 강예은 생도(63기)는 2분기 명예주제인 참군인 및 부당이득과 관련한 명예 강조사항을 전파했다. 이후 임관 10·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끝으로 생도들은 당찬 분열을 보여주며 1부 한나예 의식을 마무리했다. 2부는 공군군악대와 응원부 칼리스타, 댄스부 NADC의 특별 공연으로 생도들의 열띤 환호와 활성을 이끌어냈다.

4년 김서진 기자
sj3489@naver.com

강점숙 학교장 "정예간호장교 양성에 최선"

국방 TV '조국의 등불 국군간호사관학교' 통해 학교 집중조명
감염병 대응,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 교육 계획 등 상세히 소개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해 급변하는 환경 속 정예간호장교 육성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출처=국방일보)

지난 5월 13일 국방TV '국방포커스'에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 및 생도대장 이순영 대령, 선발평가과장 곽용녀 중령이 출연해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방송에서는 '조국의 등불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제목으로 본교를 소개한 후,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와 국민에 헌신

해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간호장교의 임무 수행을 부각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본교의 중증외상 처치훈련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의 무궁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특성 및 생도 생활과 올해 임관한 62기 신임소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감염병

초기 국군대구병원에서 위국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를 실천한 60기와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한 62기의 활약상을 담아냈다.

특히, 'XR 기반 중증외상 처치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소개하며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교의 주도적인 노력을 보여줬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상,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에 따른 응급처치 가이드를 XR기반으로 제공·훈련해 실제 현장에서의 처치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은 “앞으로도 본교는 재난간호교육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며 “전·평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국군장병들을 위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예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년 김지수 기자
ssp9623@naver.com

강인한 정신력과 열정으로 기본전투능력 배양

병체험으로 군병원시스템 숙지, 전투기술과 주특기 훈련 수행

65·66기 군사훈련

65·66기 생도들이 지난 4월 25일부터 3주 동안 실시된 하계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의 전투기술과 기본 소양을 숙달하고 정예 간호장교의 길에 다가섰다.

1학년(66기) 생도들은 1주차에 본교에서 이론과 군사지식을 학습하고 경계와 편제장비, 수류탄 등의 훈련을 받

았다. 2, 3주차 육군3사관학교 위탁교육에서는 본교에서 선행학습한 지식을 행동화하고 개인화기 사격과 각개전투 등 개인 전투기술을 숙달했다.

2학년(65기) 생도들은 1주차 본교 군사훈련에서 분대공격·방어와 독도법 이론을 교육 받았다. 2주차에는 3사단에서 병체험훈련을 통해 사단 의무대와 군병원 체계를 학습했다. 생도들은 gop(일반전초)를 도보 답사하며 전방 부대의 임무를 체험했다. 용사들과 함

께 생활하고 주특기 훈련에 참여하며 애전부대에서 간호장교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되새겼다. 3주차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사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분대 단위 공격과 방어를 지휘하는 경험을 쌓았다.

2학년 중대장 허유정 생도(65기)는 “이번 훈련을 통해 참군인으로서의 기본 전투 능력이 향상되어 뿐듯한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년 황주경 기자
hjkrisa@naver.com

'온비, 너만을 기다렸잖아' 66기 신입생환영회 성료

특별무대로 입학 축하하며 생도생활 응원



‘온 세상을 비출’ 66기 생도들이 감춰온 끼와 재능으로 생도대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4월 7일 본교 백합관에서

66기 신입생도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신입생환영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2학년(65기) 동기회 주관으로 강점숙 학교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과 전 생도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행사의 1부는 2학년 동기회장 생도의 인사말과 신입생도들의 입학 축하 영상을 시청하며 막을 열었다. 2부에서는 신입생도들의 풋풋한 무대들이 이어졌다. 특히 66기 생도들의 기초군사훈련을 지도했던 지도생도들의 특별무대는 백합관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3부에서

는 NADC, 칼리스타, 사하라 등 선배 생도들의 무대를 통해 신입생도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신입생환영회를 주관한 2학년 동기회장 장나원 생도(65기)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생도가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열심히 준비해준 생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66기 생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년 임서영 기자
limsy4595@naver.com

땅·바다·하늘에서 국군간호장교 역할 찾는다

3학년(64기)생도들, 해양·항공훈련 이어 유격훈련까지 강행군
진해·충주·괴산에서 훈련 통해 ‘나를 뛰어 넘는 기회’ 확인

64기 군사훈련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64기) 생도들의 새로운 훈련에 도전하는 용기와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진해, 충주 그리고 충북 괴산을 가득 채웠다.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생도들은 진해 해양의학원에서 잠수 의학개론, 고압산소치료, 해양환경 적응훈련 그리고 고압산소치료장치에 대해 학습·실습하며 해군 간호장교 역할을 이해 했다. 이어 5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충주 항공우주의료원 훈련 센터에서 항공간호 종론 교육, 항공우주의료원 견학, 비행환경적응 이론 교육, 훈련센터 체험, 항공의무훈련장 체험 등을 경험하며 공군 간호장교로서 갖춰야 하는 항공지식과 공군 간호장교의 특성을 살펴봤다. 김감사 생도(64

기는 “육군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공군·해군 간호장교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며 “나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능동적인 태도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간의 해양·항공 훈련을 마치고 64기 생도들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충북 괴산에서 유격훈련을 받았다. 16일 오후부터 유격체조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 기초장애물과 산악장애물을 숙달했다. 그 후 19일 유격 훈련의 꽃, 공수지상훈련을 실시했으며 20일 7km 뛰걸음을 끝으로 유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퇴소식을 진행했다. 3학년 중대장 정선주 생도(64기)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도전이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힘들 때 언제나 동기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3년 박성주 기자
pbdae2747@naver.com



▲군사훈련에 들어간 64기(3학년)생도들이 유격훈련장에서 조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훈련 따라잡기

정예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이 확정되면 입학식을 갖기 전 합동입교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사관생도로서 입교가 허락된다. 간호사관학교는 이와 함께 학년단위로 간호장교에 요구되는 약전 실무능력과 족응력을 갖추기 위해 단계적 군사훈련들을 거친다. 첫 입교부터 학년별로 수행되는 훈련과정을 함께 따라보자.[편집자 주]

군사훈련 첫단계: 도전·충성·끈기 배운다

매년 1월 말,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 찬 국군간호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이 하나둘 학교로 온다. 내년에도 기초군사 훈련을 받으러 올 67기 예비생도들을 위해 그들이 받게 될 훈련과 그 의미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기초군사훈련 1~2주차에는 예비생도들이 민간인으로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종심과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 경례, 관등성명, 제식, 군대 용어와 같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숙지사항, 군가, 그리고 국군도수체조 등을 매일 익히며 군인으로서 한 발짝 나아간다. 이 시기에는 동기들과 개인정비 시간에 함께 군가를 불러보고, 국군도수체조도 연습하며 생도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

기초군사훈련 3~4주차에는 본격적인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제식 훈련부터

화생방, 경계, 행군, 개인화기, 각개전 투까지 다양한 과목들이 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면서 예비생도들은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언제 이 훈련이 끝날지, 내일은 또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며 좌절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후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 고된 시간 속에서도 동기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 함께 극복하자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기초군사훈련은 어엿한 생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예비생도들은 기초군사훈련이 마냥 힘든 훈련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멋진 사관생도로 입학하기를 응원한다.

1년 활도연 수습기자
chahwang04@naver.com

첫 학년의 혼돈: 첫걸음, 성장, 기초다자기

1학년 하계군사훈련은 기초적인 군사 지식을 쌓기 위해 처음 받게 되는 첫 군사훈련이다. 1학년 하계군사훈련은 3주간 이뤄지는데, 훈련 첫 주는 본교에서, 나머지 2주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1학년 군사훈련 때 배우는 과목에는 경계, 개인화기, 수류탄, 화생방, 편제장비, 각개전투가 있다. 이런 과목들을 통해 1학년 생도들은 군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숙달해야 하는 전투기술을 습득하고, 훈련 속에서 리더십, 팔로어십 등을 배운다. 간호인으로서는 훈련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생각해보며 간호대상자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1학년 군사훈련 동안 여리 과목을 배우지만, 제일 인상 깊은 훈련은 각개전투이다. 1학년 군사훈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각개전투에서는 기본 전투기술 개념을 이해하고 전장감시, 생존, 기동, 타격 기술을 실습한다.

각개전투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1학년 생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목이다. 1학년 군사훈련 교장 중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체력이 요구된다. 약 4kg 정도 되는 K2소총을 들고 실제 전시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겨가며 목표지점까지 이동하기란 쉽지 않다.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지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생도들은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각개전투 훈련에 임한다.

1학년 생도들은 6가지 과목을 통해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다. 3주간의 군사훈련을 통해 생도들은 강한 체력을 기르게 되고, 진정한 참군인으로 한 층 더 성장한다. 지난 5월 육군3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이다는 생도(66기)는 “첫 군사훈련이라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교관님들께 질의응답을 하며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다.”라고 밝혔다. 훈련 간 몸으로 익힌 전투기술과 군사훈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기반이 돼 앞으로의 군사훈련에서도 발전한 생도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2년 한윤서 기자
405line@naver.com



2학년: 응용된 군사지식 배우고 훈련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와 달리 더 넓은 시야와 환경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군사훈련은 크게 본교 군사훈련, 병체험 훈련, 그리고 3사관학교에서의 훈련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본교에서는 3사관학교 훈련 선행학습과 체력단련, 개인화기 및 행군 등 기본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본교 군사훈련에서 이후 예정돼있는 병체험 훈련과 3사관학교에서의 훈련을 위해 기본 체력을 미리 길러놓는 것이 중요하다. 65기 생도들은 본교 훈련의 마지막 날 완전군장 급속행군을 끝으로 다음 훈련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어서 받는 병체험 훈련은 특정 사단이나 부대에서 1주간 생활하며 이뤄진다. 이는 장차 간호장교로서 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을 간호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병영생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하므로 행하는 훈련이다. 올해 65기 생도들은 육군 3사단에서 훈련을 받으며 GOP 담사 및 군단지원병원과의 무근무대 견학 등을 진행했다. 병체험 훈련 후, 3사관학교 훈련에서 실습하는 과목은 크게 세 과목으로 분대전투, 독

도법, 개인화기가 있다. 생도들은 분대 전투 과목에서 분대공격, 분대방어 훈련을 받으며 전투 위기 상황에서도 전투원의 생존력을 지키며 분대를 이끌고 통솔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두 번째 과목인 독도법에서 생도들은 지도정치부터 시작해 축척, 방위, 기호 등을 파악하며 지도를 읽는 방법을 반복 실습한다. 지도를 들고 동기들과 함께 협력해 끝내 최종점으로 향하는 과정은 생도시절 경험 할 수 있는 뜻깊은 순간 중 하나이다. 개인화기는 권총사격을 실시하며 본교 훈련보다 더 전문적으로 정조준하여 사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2학년 군사훈련은 1학년 군사훈련에서 배웠던 기본 군사훈련과 더불어 응용된 군사 지식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각천금(一刻千金)의 시간이다. 훈련 당시엔 고되고 힘겨울 수 있지만 이 일본일초의 시간이 모여 천금의 값어치를 하며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안세희 기자
twin1love@naver.com

3학년: 동기애 중심 도전·극복·성취

1·2학년 생도들은 간호장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군사지식 및 전투기술을 습득하면서 병 기본 훈련과제를 달성한다. 더 나아가 3학년 생도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난 및 응급간호에 대해 배우고 해·공군 간호장교의 역할을 습득하며 보다 깊이 있는 간호장교의 역량을 기른다. 이후 군사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격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성장한다.

유격훈련은 생존술 구비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생도들은 이를 통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신체적·정신적 자세를 함양할 수 있다. 훈련은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5일간 진행되며, 내용은 크게 유격체조와 장애물 극복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유격체조는 기초체력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운동으로 실시하며 생도들은 유격체조가 끝난 후 소대별로 나뉘어 장애물 극복 훈련을 수행한다. 그중 벽과 같이 높은 장애물을 넘는 ‘전우와 담장 넘기’와 같이 함께 장애물을 극복해야 통과할 수 있는 훈련들도 존재한다. 혼자라면 성공할 수 없었던 훈련을 동기와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생도들은 다시 한번 동기애를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유격훈련을 통해 생도들은 극한의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만이에 도전하고 극복해나가며 목표를 성취한다. 더운 날씨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기와 함께 도전하는 생도들의 모습이야말로 바람직한 참군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4년 김민서 기자
mms101300@naver.com



작은 정성으로 큰 힘을, 발전기금과 함께

▶ 동문

기수	성명	출생일	학군	학번	기수	성명	출생일	학군	학번	기수	성명	출생일	학군	학번	기수	성명	출생일	학군	학번	기수	성명	출생일	학군	학번					
3	이희자	127	19	김광희	3	162	26	이영선	3	293	31	이순영	9	708	35	양유인	6	420	38	김현기	3	197	48	이수진	15	87	53	김경경	
9	이윤금	122	19	한현숙	3	43	27	남선열	3	272	31	권자자	3	99	35	권현준	9	542	39	김경경	3	168	43	이호진	3	232	49	김주은	
13	김인향	279	19	김서경	3	42	27	임혜자	3	361	31	김우순	3	99	35	조수영	5	580	39	송수일	6	206	43	전운경	9	377	49	송미애	
13	김임용	1,198	20	신혜경	15	2,224	27	이현욱	3	129	32	김우숙	6	480	35	김수정	9	709	39	이승희	18	684	43	횡보주	6	485	49	이문선	
13	양인숙	313	20	길홍옥	3	65	27	윤현옥	3	156	32	맹승주	6	390	36	김준숙	6	212	39	한정	3	241	43	황산영	12	314	49	임자매	
13	유경희	430	21	류후자	3	147	27	홍경숙	3	56	32	문숙남	6	510	36	한선옥	6	838	40	김경봉	9	412	43	황자성	6	300	49	전소연	
14	함영희	759	21	박명화	6	1,468	27	이명숙	9	341	32	윤은경	3	120	36	박영경	15	141	40	김정현	3	95	46	차진희	9	231	49	조조숙	
14	이우경	3	127	21	장주원	6	454	27	정우주	6	405	32	윤재경	3	121	36	황현숙	6	468	40	김상희	15	1,020	46	이민경	3	141	49	최주영
14	손경선	3	127	22	권영숙	3	414	27	박윤경	3	57	32	이현숙	3	121	36	김정자	2	193	40	김혜원	15	666	46	이미경	12	422	49	홍다은
14	박혜선	3	127	22	문숙희	3	128	28	이희경	3	560	32	김영희	3	121	37	백민정	15	657	40	이자영	15	595	46	김민정	3	196	50	김유리
14	이경자	3	107	22	최기화	3	294	28	정우숙	15	1,585	32	임문자	3	320	37	이현희	3	56	41	고운자	3	288	47	장정은	9	165	50	문화진
15	인정남	3,176	23	홍민이	3	84	29	김해경	6	251	31	이수진	3	220	37	이정화	3	57	41	김미경	3	167	66	윤호은	9	336	50	박기현	
16	유경수	30	1,270	23	월영희	3	259	29	조미경	100	726	32	정병화	6	608	37	신선희	6	165	41	오우라	6	165	47	박운정	3	33	50	정자운
16	문경수	3	413	23	윤원숙	6	1,594	29	조일남	3	649	32	위정	3	120	37	인은경	9	430	41	이현아	6	221	47	김자현	6	95	50	최민선
16	이재순	15	1,840	23	장진경	3	155	30	최창경	6	165	32	천민숙	6	44	37													

군사훈련에 임하는 자세

모든 군인이 유사시를 준비하고 수행해야 할 명확한 책임을 다지는 과정이 군사훈련이다. 전투에 임하는 가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수별로 군사훈련의 과제와 목표가 분명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수행하는 군사훈련에 생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들과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따라가보자.[편집자주]



입교전 #이해심 #끈기

사관생도를 향한 첫 걸음, 기초군사훈련 입소를 앞둔 예비생도들은 아주 훈란스러울 거야.

의미있는 군사훈련을 위해 예비생도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바로 ‘이해심’과 ‘끈기’야. 처음 마주하는 타인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 바꿔 말하면, ‘동기애’라고 말할 수 있어. 서로가 아직은 부족하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전우를 보듬어 주면 앞으로 있을 훈련과 입학 후의 생활에서 큰 의지가 될 거야.

훈련이 진행될수록 예비생도들은 ‘내가 사관생도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 나만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처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지원했을 때의 열정을 되새기고 한 번 더 도전하

는 끈기를 가져봐. 그러면 충분히 기초군사훈련을 훌륭하게 수료하고 진정한 사관생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엇이든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4주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

2022년 겨울, 아직 어렸었던 나는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내가 위에서 말했던 ‘이해심’과 ‘끈기’가 무엇인지 깨닫으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 2023년의 예비생도들도 기초군사훈련이 몸과 마음 모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누구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낼 예비생도들을 묵묵히 응원할게.

1년 이수민 수습기자
lsm2974849@naver.com



3학년 #배려 #동기애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유격훈련에서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글을 통해 유격훈련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해보자 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배려야. 유격장에 가면 그늘 하나 없는 넓은 체조장, 장애물 극복 훈련 이동 간에 가파른 경사, 계속 반복되는 유격체조 등으로 인해 생도들이 체력 및 정신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 이렇게 나 자신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남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서로를 향한 말이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처해있다면 한 번쯤은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한 뒤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추천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다음은 동기애를 강조하고 싶어.

유격훈련을 하면서 동기들끼리 하는 활동들이 많을 텐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도전하고, 극복하며 노력하는 과정은 생도들에게 값진 순간이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큰 힘이 될 거야.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하며 훈련을 마무리하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더운 여름날, 함께 응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이해하며 배려의 자세로 참여한다면 훈련이 끝난 뒤 더욱 성장한 모습일 것 같아. 앞으로 유격훈련을 받게 될 3학년 생도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4년 김민서 기자
mms101300@naver.com

1학년 #설렘 #의지

레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면 좋겠어. 두 번째로 1학년 생도들에게 의숙지 않은 훈련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또한 힘들고 피곤해서 훈련을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훈련이든 분명히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여 ‘모두 다 같이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훈련이 동기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3주 동안 안전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66기 생도들이 더욱 끈끈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할게.

2년 김경은 기자
kko9870@naver.com

2학년 #긍정적인 마인드 #함께 가기

우리나라에서 더운 날씨로 늘 손꼽히는 영천이지만 매년 여름이면 생도들의 뜨거운땀과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지. 바로 하계군사훈련 기간이야. 이제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하계군사훈련을 맞이한 2학년 후배들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개인화기, 독도법, 분·소대전투 등 작년에 학습했던 기본적인 군사훈련에 이어 심화된 내용을 숙달 및 체득하게 돼. 1학년 훈련에 비해 길어진 교장 이동거리와 강화된 훈련 강도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의 기회가 될 거야. 그래서 먼저 훈련을 다녀온 선배에게 군사훈련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어.

작년 육군3사관학교 하계군사훈련에서 모범적인 훈련 태도로 교육훈련 우수상을 수상한 3학년 이한성 생도는 “군사훈련 동안 제한사항도 많고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훈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덕에 동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갖게 된 동기애가 힘든 군사훈련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됐지. 힘들 때마다 동기를 생각하며 서로를 챙긴다면 모두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자세와 동기애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군사훈련을 무조건 넘어야 할 높은 산이라고 부담을 갖기보다, 그동안의 일상에서 잠시 멀어져 동기들과 함께하며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그 마음가짐이 군사훈련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돼 너희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야. 훈련을 마치고 이전보다 더 강인하고 자신감을 얻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훈련 또한 생도 생활 속 새로운 활력이 될 도전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테니까. 우리는 간호인이지만 동시에 군인이기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에서 언제 어디든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잖아. 그렇기에 힘든 환경 속에서 지친 학과 공부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군인정신을 함양하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습, 정말 아름다워!

3년 구아영 기자
kgv010303@naver.com

▶ 학부모

성명(기수)	출연금	총 출연금	성명(기수)	출연금	총 출연금
소병균(55기)	9	521	이영호(64기)	2	146
방극률(56기)	3	495	이강우(64기)	9	75
김지연(57기)	90	3,350	이혜자(64기)	9	75
정혜순(57기)	9	324	정준호(64기)	6	50
주영길(62기)	2	146	한광희(64기)	15	125
서호석(62기)	6	102	김준현(64기)	230	1,050
권순완(62기)	2	96	박종우(64기)	6	38
박홍택(62기)	15	230	김철육(64기)	9	51
민동준(63기)	30	380	정성아(65기)	9	39
정승지(63기)	3	38	정운기(65기)	9	39
서영수(63기)	30	390	류제영(65기)	6	26
박세영(63기)	6	78	송일중(65기)	3	13
권영호(63기)	15	195	송정애(65기)	15	65
성영신(63기)	3	39	최철진(65기)	9	39
임현욱(63기)	9	512	백지영(65기)	30	120
권영란(63기)	15	195	이혜영(65기)	3	12
윤정임(63기)	10	185	홍용길(65기)	9	36
신현덕(63기)	9	110	이선미(65기)	9	36
정소은(63기)	5	170	이용석(65기)	6	6
백용현(63기)	30	270	남선희(62기)	3	3

▶ 간호후보

기수	성명	출연금	총 출연금
간호62기	송지연	3	47

▶ 기타

성명	출연금	총 출연금
김성주	3	36
서석관	3	62

■ 총 기금 : 3,361,104,170 원

문의처

재단법인 국간사 발전기금 사무국
T. 042-867-4503 (일반) 975-4568 (군) F. 042-867-450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90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간사 발전기금 사무국

계좌번호 (구좌:1만원)

- 국민 은행 : 468-01-0042-164
- 농협중앙회 : 489-17-007491
- 우체국 : 311712-01-001125
- 우리은행 : 1005-001-417085
- 하나은행 : 659-910014-57704
- 신한은행 : 100-024-743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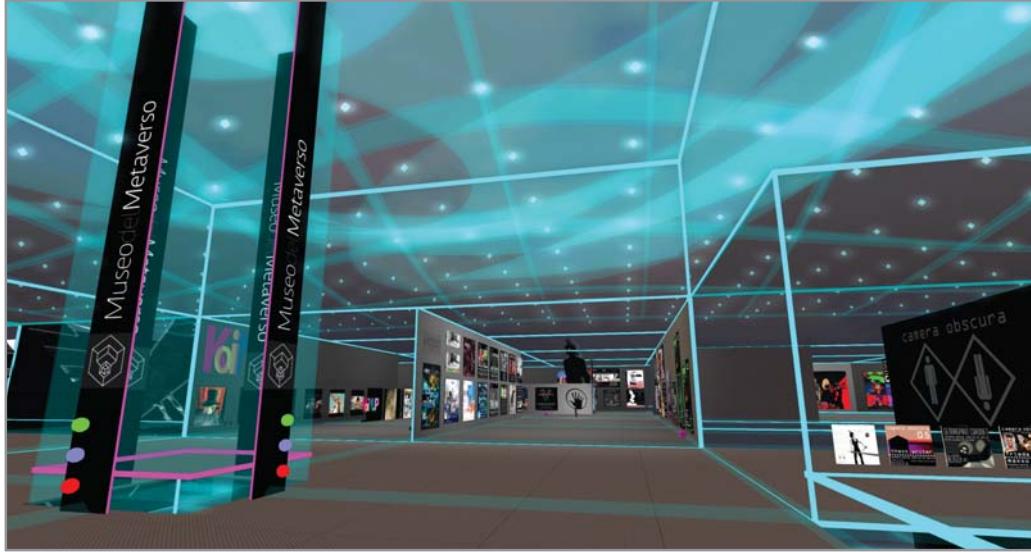
계좌번호 예금주 : 재단법인 국간사 발전기금

* 발전기금 입금시에는 성명과 함께 기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명	출연금	총 출연금	기수	성명	출연금	총 출연금
59 이세연	6 78	60 신나은	9 81	61 강경경	3 15	61 황경아	3 16
59 이유빈	9 114	60 신은경	6 54	61 강정은	6 30	62 강진주	2 2
59 이유진	3 39	60 오성민	9 81	61 강지현	3 17	62 공예랑	2 2
59 이재원	9 117	60 이도아	3 27	61 강현빈	2 14	62 권다혜	2 2
59 이혜진	9 117	60 이아영	9 81	61 강혜수	3 14	62 권지윤	2 2
59 이희송	6 76	60 이진주	9 81	61 류은진	3 9	62 김동호	10 62
59 장혜연	2 37	60 이혜정	3 27	61 상재영	15 75	62 김은비	2 2
59 정우경	9 117	60 임천혁	9 81	61 박지영	2 2	62 김예경	2 2
59 최애경	9 117	60 장그창	9 81	61 박재민	9 45	62 김세민	1 1
59 최창훈	6 78	60 정은희	3 27	61 박재민	3 17	62 김세연	2 2
59 황예리	3 39	60 최자민	3 27	61 상재영	15 75	62 남윤주	1 1
60 김자민	4 78	60 김나영	3 91	61 손주희	15 75	62 남윤주	1 1
60 이선영	6 84	60 김해진	9 81	61 김연서	2 15	62 박성원	2 2
60 강다정	3 57	60 박구승	3 28	61 김연서	2 15	62 박성원	2 2
60 강민지	6 54	60 박은지	9 81	61 김현우	15 75	62 박세리	2 2
60 곽해민	3 27	60 박해원	6 56	61 이다경	15 62	62 박수빈	2 2
60 김느울	3 27	60 신수현	9 81	61 이수민	3 15	62 박수정	

공상과학의 현실화, 메타버스

원하는 옷차림으로 외출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친구를 만난다. 예약해 놓은 표 없이 내키는 대로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어 모험을 즐기기도 한다. 이는 모두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의 사례이다. 언택트 문화로의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은 메타버스 연구 경쟁에 불을 지폈다. 메타버스 개념의 시초와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알아보자[편집자주]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박물관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언택트 시대의 열쇠,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개념과 그 분류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 미국의 작가 넬 스티븐슨은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메타버스’와 ‘아바타’의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현실세계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로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해커가 된다.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메타버스는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핵심 트렌드가 됐다. 세계를 초월한다는 뜻의 메타버스는 4차 산업 혁명의 등장 이후 이제는 친숙해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게임 및 공연과 같은 문화 분야에서 시도되던 메타버스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경제·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가상세계에서 친구를 만나 친목 및 오락을 즐기던 것을 넘어서서 회의도 하고 업무도 보는 등 사회의 필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는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외적’의 두 축을 바탕으로 메타버스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세계(Virtual Worlds)’, ‘일상기록(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증강현실은 현실공간에 가상을 결합한 세계로, 몇 년 전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게임 포켓몬GO가 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했다. 현실공간에서는 게임캐릭터가 보이지 않지만,

폰 카메라 화면의 게임공간에서 나타나는 캐릭터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 입혀진다.

흔히 VR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가상현실은 전용 헤드셋과 센서를 통해 콘텐츠를 송출한다. 앞서 증강현실(AR)이 현실세계에 입체적인 데이터를 추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면 가상현실(VR)은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가상세계를 통해 접하게 하는 기술이다.

일상기록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과 정보를 텍스트, 사진, 영상, 음성으로 저장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일상기록의 사례로는 스포츠웨어 기기를 활용해 달린 거리와 소비한 칼로리, 운동시간, 선곡 음악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이키런과 같은 스포츠앱이 대표적이다.

거울세계는 가상 공간에 현실을 사실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구글 어스는 전 세계 위성사진을 수집하여 구글 어스 접속을 통해 가보지 못한 장소의 거리뷰와 항공뷰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세기 말 처음 제시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돼 그 역사가 길지 않고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도로 사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메타버스 트렌드에 발맞춰 이와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년 정영신 기자
yskitten@naver.com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현실에서의 활동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다양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는 2018년 8월 네이버Z에서 출시한 ‘제페토(ZEPETO)’다. 이는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화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라이프로깅(Lifelogging)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이용

자들은 얼굴인식, 증강현실(AR), 3D 기술을 활용해 맞춤 제작한 아바타로 제페토 월드에서 게임하고 소통하며 현실 세계를 공유한다. 이들은 젬(Zen)과 코인으로 다양한 의상과 아이템을 구매하고 아바타를 꾸며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자아를 창조한다. 제페토를 통해 이용자들은 나이, 성별, 인종, 지역을 넘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상 속에서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가상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의 지속적인 마케팅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 기대된다.

2년 오나현 기자
ohnahyun0506@naver.com

영화를 통해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작품 ‘레디 플레이어 원’을 통한 메타버스 세계의 이해

현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떠오르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였다. 그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2018년에 스티븐 스플리버 감독이 제작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있다. 영화 속에서는 2045년의 미래를 그려내는데, 등장인물들은 VR 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할 수 있다.

그곳은 영화 속 인물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다. 어느 날 오아시스 창시자는 가상현실 속에서 3개의 미션을 완성하면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 영화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번갈아 가며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을 담아내는데, 우승을 위해서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 세계의 우정과 사랑의 힘이 필요함을 알려주며 끝이 난다.

<레디 플레이어 원>은 VR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된 세상을 보여주며 미래의 메타버스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메타버스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제시하며 미래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영화의 특성상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됐음에도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는 메타버스 세상의 초입부에 도달해있다. 현재 VR 기술력이 영화



속 메타버스 세계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영화 속 현실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메타버스 적용분야 범위는 더욱 확장돼 가상세

계는 단지 ‘즐기는 곳’의 역할에서 벗어나 ‘놀고 공부하고 일하는 세계’로 발전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속 오아시스처럼 하나로 통합된 가상현실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아시스는 결국 가상 일 뿐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현실 세계에서 찾아야 하는 점도 함께 일깨워주며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3년 강서연 기자
cyzh989898@naver.com

2022 계룡세계문화엑스포

K-Military 경연대회

국군장병 여러분의 넘치는 열정과 끼를 보여주세요!

대회일정 | 2022. 10. 15. ~ 10. 16.
*소집기간: 2022. 10. 13. ~ 10. 16.

장 소 | 계룡대 비상활주로 상설무대

접수기간 | 1차 심사(서류) 2022. 6. 13. ~ 2022. 7. 22.
2차 심사(현장심사) 2022. 8. 18.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지원부문 | 7분 내외 프로그램으로 제한없이 지원가능
(노래, 댄스, 악기연주, 무술공연, 퍼포먼스 등)

참가대상 | 전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를 대표자 1명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으로 제출
인터넷: gumdo425@naver.com
인트라넷: n19-20090@mnd.mil
(지원서 양식 공문, 각 군 게시판 참조)

접수기간 | 국방부장관상 1팀 (100만원, 상장)
충남도지사상 3팀 (50만원, 상장)
계룡시장상 3팀 (40만원, 상장)
조직위원장상 3팀 (40만원, 상장)

생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보

발굴하여 정성과 열정을 담아 만들어내는 학교신문이다. 국군사학보는 생도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서 진솔하게 담아내기 위해 이번호(132호)부터 생활면(생도들의 학보)을 신설해 여행·독서·경험·바램 등 생도들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코너를 운영한다.[편집자 주]

직접 계획하고 경험했던 태국여행

"틀어진 계획에서 인생의 새로운 나를 선물받아"

여행

강예은 생도(4년)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 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 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 이었다."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책의 나온 구절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금지당한 시기에 가슴 떨리고 설레던 나의 여행의 기억과 이유를 다시 한번 살기시켜 준다.

처음으로 일상을 벗어나 직접 계획하고 경험했던 태국 여행은 계획부터 설레는 감정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늘 행복하기만 한 여행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실망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계획과 다르게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 시간이 늦어졌다. 그때 예상치도 못하게 직행 버스



를 찾아 계획보다 빠르게 도착했다. 검색해서 찾아간 맛집이 생각보다 별로여서 속상했지만, 더운 날씨에 우연히 찾아간 가게에서 최고의 음식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왕궁을 관람하려고 했지만 더운 날씨에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다. 그로 인해 찾아간 곳에서 배를 타며 생애 최고의 노을을 볼 수 있었다.



작은 힘으로 큰 힘 다스린다 "주짓수"

특별활동

박효인 생도(2년)

바쁜 일상으로 지친 생도들에게 다양한 특별활동은 큰 활력소가 되어준다.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그림을 그리거나 리본 공예 등을 통해 예술훈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도생활의 원동력을 얻는다. 그중 나는 거친 스파링 속에서 끈끈하고 돈독한 유대감

이 피어오르는 나의 특별활동 '주짓수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별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깨우며 운동을 시작한다. 주짓수의 특성상 관절을 꺾고 조르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을 위주로 몸을 풀어준다. 몸이 충분히 풀어진 후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공격과 방어의 기술들을 연습한다. 주짓수의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행하는 '국간사학보'는 본교 편집국 소속 기자 생도들이 학교 안팎의 소식을 직접

환전해간 돈이 부족해서 당황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간 편의점에서 만난 외국인과 친구가 되었다.

이렇듯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감정이 소용돌이쳤던 순간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큰 여행의 한 지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들이 이토록 오래 생각나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던 경험이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뜯간지 2년이 되는 지금 -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나 낯선 도시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의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방을 안내받아 깔끔하게 정리된 순백의 시트 위에 누워 안도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 태국에서의 경험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낯선 환경에서의 나의 빛나는 기억은 함께 여행을 간 동행자의 배려와 현지인들의 배려를 통해 완성되었다. 삶에서 벗어나 다양한 감정을 통한 '나'의 성장과 경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나의 여행의 이유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한 번 더 이러한 새로운 여행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드릴은 스파링에서 좀 더 매끄럽고 정확한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 반복 연습하는 훈련이다. 기술을 충분히 익힌 후 스파링을 하면 연습한 기술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주짓수는 이기기 위해 상대의 힘을 조작하여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몸을 맞닿으며 서로에게 집중하고 존중하며 운동을 하다 보면 선후배 간에도 더 끈끈하고 돈독한 유대감이 생겨 더 즐거운 생도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주짓수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을 익히고 스파링에서 직접 활용했을 때의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땀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원동력도 얻어 생도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길"

레바논 파병 안선영 대위 (57기)

인터뷰

안선영 대위(57기)는 동명부대의 간호장교로서 현재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서 평화유지(PKO)임무 수행 중이다. 안선영 대위는 2017년 임관해 초임자로 국군양주병원 수술집중 병동,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응급 간호 주특기를 수료하고 육군훈련소 지구 병원에서 근무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간호실습 교관 및 보건 간호장교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 파병 지원동기는 무엇이었나

학교 다닐 때 파병 다녀오신 간호장교 선배님과 '선배와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파병에 대해 알게 됐고, 교본부 복도를 지나다니며 '현지 의료지원 중인 간호장교' 사진 액자를 보며 저도 파병군인으로서 먼 타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도 때 작성했던 포트폴리오에도 군생활 목표로 파병을 적어두었던 것 같은데, 때마침 부대이동 시기가 잘 맞아 동명 26진 파병부대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파병지에서 간호장교의 역할은

간호장교는 의무대에 편성돼 있으며, 의무대에서는 280명 부대원들의 신체·정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에서는 평화유지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민사작전으로도 레바논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민사작전 중 '현지 의료지원' 임무를 의무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3진까지는 현지에서 대면 의료지원을 시행했으나 24진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원격으로 의료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파병생활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은

동명부대 의무대는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X-RAY 촬영, 혈액검사, 초음파검사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간호장교는 부대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환경을 제공해주고 UNIFIL 병원과 소통해 적시적소에 맞는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는데, 치료를 마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부대원들을 보면 안도와 함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인원도 있는데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네어 주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에 그 분들께서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 역할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파병 근무중 불편했던 점은

이곳 레바논에서는 한국에서와 다르게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등 제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필요하면 바로 구매해 살 수 있었던 사무용품조차도 이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필요한 물품들에는 대체품이 있기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 내 식당에서는 부대원들을 위해 늘 맛있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더라도 부대 안에서 충분히 재미있게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사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후배 생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느 자리에서든 본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래 간호장교로 임관하게 될 여러분들은 임관 후 임무 수행 시 지장이 없도록 전공공부, 실습 등을 열심히 하라는 당연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추가로 영어 회화, 체력관리도 해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보면 제가 약한 소리 할 때마다 옆에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과정을 입증 한다.'라고 말해주는 부대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나면 번쩍하고 나태해진 제 마음가짐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나면 번쩍하고 나태해진 제 마음가짐을 다시 잡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마세요,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임관해 동료로 만날 그 날까지 모두 화이팅!

4년 엄정원 기자
lmk5202@naver.com

여름밤에 우린

2022.5.25 (수) KAFNA 청춘버스킹,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시낭송&노래

총 노래 6팀, 시낭송 4팀

부스 운영

캐리그라피, 카페, 포토존

2년 김민정 기자
kimminjeong@kafna.korea.kr

스물셋, 스물하나

스물셋, 스물둘, 스물하나. 우리는 풋풋한 청춘의 시대의 주인공이다. 각자의 관심과 저마다의 인생에 대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이번 문화면의 테마를 '스물셋-스물하나'로 선정했다.[편집자주]

스물셋, 나의 청춘

나의 지난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껏 쌓아 올린 나의 23년이라는 시간은 신기하게도 앨범 속 사진처럼 선명히 기억된다.

'이수지'라는 제목을 붙여준 앨범 속에는 눈이 부시게 환한 장면도, 심연 속에 끝 가라앉은 듯한 어두운 장면도 존재한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장면 하나하나는 객관적으로 과거를 담아냈으나 마음에 저장돼 있는 감정은 머릿 속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 친란했던 순간은 찬란했던 대로 남아 있지만, 어두웠던 순간은 모래사장의 유리처럼 뾰족했던 처음의 모습은 난데없이 사라지고 둑글고 반짝거리는 보석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마음 속에 둔근 조각들만 채울 수 있게 된 것은 나라는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성격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 몸과 마음 모두 어렸던 10대 초반의 나는 모든 것을 기져야만 했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했다. 누군가 내 세상을 움직이려 든다면 눈살을 찌푸리고 화를 내기도 했다. 무엇이든 잘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어 계획이 틀어지면 가슴이 답답했고 주변을 헛했으며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다. 매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완벽하게 살려고 했던 신념에 가로막혀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랬던 내가 마음을 고쳐먹게 된 건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였다. 내 틀 안에 세상을 육여넣는 것보다 내가 세상이라는 큰 강물에 흘러가는 한 방울의 물이 되는 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된 순간, 위태했던 장벽은 무너지고 짜릿한 감정을 느꼈다. 그때부터 계획이 틀어져도,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덕쳐도 '오히려 좋아. 나쁠 거 없잖아.'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다.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도 이 문장만 마음 속으로 되새기면 놀랍도록 마음이 평온해지고 후회라는 감정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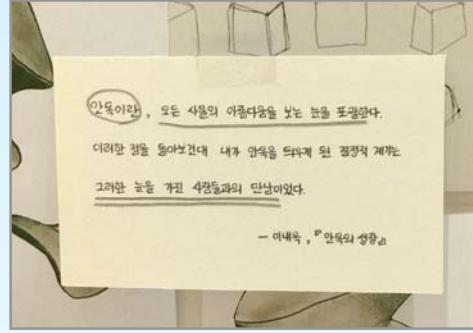
과거의 내가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해서 현재의 내가 그것을 나쁘게 기억할 이유도, 비판할 자격도 없다. 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충분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뜻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스물셋의 나이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나쁜 기억도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둔근 유리 조각이 됐고, 후회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빛나는 청춘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 후회와 걱정으로 채우기엔 그 시간이 아깝다. 어쩌면 몇십년 후의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또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행복을 쫓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4년 이수지 기자
suuij0331@naver.com

나의 이름에게

삶에서 지키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 사람 사랑하기



이름값하고 살자.

번지르르한 단어들로 포장된 멋진 문장은 아니지만 매일을 걷다 마주치는 길립길 속에서 길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삶의 이정표이다. 이 문장은 크게 세 개의 뜻을 함의하고 있다. 먼저는 문장 그대로 세상의 예쁘고 고운 말들을 모아 담아내는 나의 평생이 향기롭기를 바라 주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나라 정(鄭), 칙할 선(善), 구슬 주(珠)로 '착하고 귀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랐던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여기에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인다. 온 누리에 구슬처럼 선한 빛을 뿜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름의 참된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게 있어 세상을 아끼고 빛내는 방식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정현중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는 "한 사람의 온다는 건 무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일"이라는 구절이 있다. 영겁의 시간, 몇십억 인구 속에서 인연으로 만날 천문학적 확률의 우연과 더불어 그 사람이 살아온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함께 스며오는 것은 서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도생활을 하며 가장 감사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대가 없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공유할 든든한 존재들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곳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면서, 모서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꼭 맞게 합쳐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바라던 어른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진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땅에 지지할 모서리를 뾰족하게 갈아내느라 바쁜 우리의 무채색 지화상이 조금은 서글프게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조금 먼 길을 돌아 도착한 오늘날, 기꺼이 둑글게 다듬어 낸 모서리 한쪽을 내어 주는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수한 열정을 다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인연을 감당해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쏟아지는 빙하들의 별만큼 많은 사람 속에서 굳이 상처받으며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얹힌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는 모양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을 깊이 먹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좋은 점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그 정성을 아끼 사랑하는 이들에게 쏟아내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기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바라기보다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면 된다.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내게 남아 있을 빛나는 이름을 아끼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3년 정선주 기자
rhythmofsummer@gmail.com

우린 노래가 될까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분을 음악과 함께 한다. 그림, 영화, 독서 등의 여느 문화 활동과 마찬가지로 음악도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아 듣는다. 혹시 '인디'라는 장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인디는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 상업적인 대중 음악과 달리, 독립된 소규모의 자본으로 활동하는 장르를 일컫는다. 나는 이 글에서 내 고등학교 3년을 함께 했던 인디밴드와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주었던 인디밴드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처음으로 소개할 밴드는 베어 물 수밖에 없는 가시 돋친 사과, '쏜애플(THORNAPPLE)'이다. 쏘애플은 독특한 감성의 가사와 몽환적인 사운드를 가진 밴드이다. 대표곡들의 제목인 '아지랑이', '시퍼런 봄', '아가미' 등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음악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거나, 대중적인 곡들에서 들어볼 수 없는 독특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다면 쏘애플이라는 밴드의 노래를 추천해 주고 싶다.

이 글의 제목을 읽고 나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밴드는 '우린 노래가 될까'라

는 곡의 주인공인 '너드커넥션(Nerd Connect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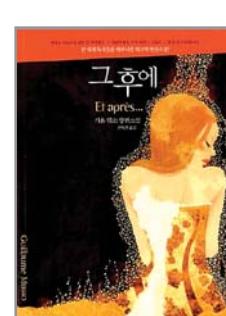
너드커넥션은 인디밴드 중에서는 비교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밴드에 속한다.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는 너드커넥션은 모토에 걸맞게 서정적인 가사로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그중에서도 '좋은 밤 좋은 꿈',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와 같은 곡들은 정말로 이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듯한 분위기로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 오늘 하루가 유독 힘들었다고 느껴질 때, 요즘 사는 것이 지친다고 느껴질 때, 너드커넥션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만약 위에서 추천한 음악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제는 인디밴드 노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몬스테이지'에서는 유명 밴드부터 무명 인디밴드까지 매우 다양한 밴드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어 볼 수 있다. 밴드 음악의 진정한 묘미는 단순히 귀로 음악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음악을 직접 찾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내가 힘들 때 음악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음악에서 무언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2년 김민성 기자
minseoung555@naver.com

나의 인생 책을 소개합니다.

식스센스급의 반전 <그 후에>



인생 책이 무엇이 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책이 떠오르는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패션, 장르, 작가는 다르다. 자신 있게 자신의 인생 책 또는 작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뚜렷하게

자신의 인생 책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나의 인생 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그 후에>는 <구해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작가, 기욤뮈소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줄간으로 기욤뮈소는 전 세계에 판권이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상하게 됐다. <그 후에>는 임사 체험, 메신저, 죽음의 예언, 사후 세계 등 초현실적 요소를 가미한 스플릿 형식이지만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삶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다. 소설의 주인공, 변호사 네이선은 뉴욕의 맨해튼에서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그는 소송에서 벤전백승하며 나이에 비해 회려한 커리어를 이루며 살지만 평생을 바쳐 사랑한 여인 말로리와 이혼했다. 어느 날 네이선의 사무실에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메신저'를 자처하는 굿리치 박사가 나타난다. 네이선은 굿리치가 예견한 죽음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 그 후 네

이선은 굿리치의 진료일지를 보게 되고, 자신이 여덟 살 때 물에 빠진 여자친구 말로리를 구하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건의 담당 의사가 굿리치인 것을 알아낸다. 네이선은 굿리치가 자신을 찾아온 건 다음에 죽을 사람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 여겼다. 이에 네이선은 또한 충격을 받게 되고 삶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독자의 상상에 맡기면서 책이 끝나게 된다.

처음 <그 후에>를 읽었을 때 나는 작가의 패션에 감탄했다. 그의 패션에 훌륭 책을 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이 책을 계기로 그의 저서를 모두 찾아서 읽어 보았다. 작가의 다른 소설들도 반전이 넘치고 좋았지만 <그 후에> 때 느꼈던 소름은 잊히지 않는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말까지 읽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가의 패션에 감탄하며 책에 빠져들게 되고 빠른 사건의 전개로 지루한 틈도 느낄 새 없이 책장을 넘기게 된다. 그렇게 기욤뮈소의 <그 후에>는 나의 인생 책이 됐다. 이 책을 계기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상대방에게 선물했다. 뿐만 아니라 살인과 추리 소설에만 흥미를 가지던 내가 장르에 기리지 않고 여러 책에 시도하고 있다. 나의 인생 책을 더 찾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있지만 아직 <그 후에>를 떠나낼 다른 인생 책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책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멋진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저마다의 인생 책을 만나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책 한 권 읽어보는 것은 어떨지 추천하며 글을 마친다.

2년 최예빈 기자
yebin3021@naver.com

